

시론



이흥배 목사
꿈을이루는교회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교훈

다고 한다.

구약 시대에는 히스기야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없애도록 했다(대하 29:1-30:27). 신구약 중간기에도 마카베에 의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뜰에서 집승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마 21:12-17; 막 11:15-19; 눅 19:45-48; 요 2:13-16). 공관복음서의 청결 사건은 공생애 후반 유월절에 행해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청결 사건은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 찻 기적을 행한 후 이어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공생애 전반에 유월절을 앞두고 행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 청결 사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며, 모두 유월절을 앞두고 행해졌다.

성전의 청결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심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해야 했는데 갈릴리 지역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필

요한 제물을 사서 제사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신 14:24-26). 그들은 흠 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험당한 제물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성전에 쓰일 제물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고통한 상인들에게 이방인의 뜰에서 필요한 제물을 팔게 했다. 또한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데나리온)나 헬라 화폐(드라크마)로 성전제를 낼 수 없기에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도 있었다. 그 결과, 제물을 파는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었다. 그 결과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행위가 활성화되고 성전이 장사의 소굴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청결은 모두 유월절에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그들은 성전에서의 누룩은 제거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 안 청소도 잘하고, 예배당 청소도 잘하면서 자기 심령 청소를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더욱이 교회 지도자들은 성전 청결에 대한 영적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마짜, Matzah)을 먹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여러 날에 걸쳐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집 안팎을 청소한다. 그동안 사용하던 그릇을 끓는 물에 삶거나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식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던 가구를 버리고 새 가구를 구입하기도 한다. 카펫을 청소하고, 옷이나 침구나 커튼 등도 세탁하고, 집 안에 있는 먼지를 살살이 제거한다. 집안에서 찾은 빵이나 누룩이 들어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찾은 것은 모아서 태운다.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이때 살림살이를 저렴하게 마련하기도 한

칼럼



정병철 목사
침지기교회

다시 삶 축제

도 한다.

이에 착안하여 필자가 담당고 있는 인천 검단지역의 검단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번 3월 31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자살예방캠페인 '다시 삶 축제'를 기획했다.

검단 지역의 교회들이 교파를 넘어 함께 연합하고 있는 중에 예배목회위원장 필자를 비롯하여 부회장 이상민 목사(한우리교회), 총무 유승범 목사(검단침착은교회) 등의 여성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부활절 연합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 부활절연합예배의 복원에 우선적인 신경을 썼다면, 올해는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의 행사를 넘어서 부활의 생명 복음이 지역 사회 전체에 편안하게 전파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부활절 당일 오후 2시~3시까지의 부활절 행진을 캠페인 활동(줄걸, 피켓팅)과 더불어 진행하고, 3시~4시 30분까지는 검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역 근처, 야외 공연장에 집결하여 분화 공연을 진행하며, 동시에 몇몇 야외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을 우리말로 된 '다시 삶'의 의미를 '자살예방'과 접목하였고, 이에 공감하는 여러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인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굿네이버스' 등이 부스를 맡아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을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였다.

또한 4월 6일 토요일에는 코로나 때에 부활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심고자 시작된 현행행사가 '제8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피로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서구 보건소와 협업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이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고,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배들의 목숨 건 복음 전파의 비통을 이어 받은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를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에 있었던 35회 목회자평생교육과정의 주제였던 '뉴트로 MISSIO'의 정신, 즉 복고를 새롭게 하며, 현대에 맞는 새로운 경향의 선교와 전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모쪼록 '다시 삶', 즉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넘어서 지역사회에 충만하게 넘쳐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3월 20일 저녁 10시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나는 괜찮은가요? 뇌가 보내는 죽음의 유혹] 편을 방송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35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2023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2,735명)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12,906명)로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사망자(32,156명)보다 그 기간에 자살로 목숨을 잃은 이들(39,267명)이 더 많은 지경이다. 수년을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

社說

중독(中毒)시대의 광신자(狂信者)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까지 침투한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막아보고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도 총동원하고 대책들을 세우고 있으나, 현실은 점조적으로 점점 세밀화 되고 비밀한 가운데 민연하고 있는 것이다.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마약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장년층의 도박중독, 성 중독, 특히 지금은 정치중독 등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중독현상으로 사회 여러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사람은 왜 금지하는 중독성 있는 것을 찾을까? 그것은 올바른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육체적 쾌락(快樂)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행복과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들이나 도구들이 더욱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중독 증에 걸리게 한다. 이로 인하여 좋지 않은 것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어린이들의 인지능력의 저하, 사회성의 결여, 성격적 이상 현상 등과 도덕적 윤리 규범이 무너지고, 공동체의식이 파괴되는 현실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우리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 까지도 무너트리는 이념의 중독성까지 번지고 있으며, 영적 중독성도 만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념의 중독성은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보나 보수나, 좌파나 우파나 선을 넘는 현실의 정치분쟁의 사회현상은 역대선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이, 마치 항정신적 악물에 취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보다도, 언어폭력과 독설, 편법과 거짓, 성적 비하 발언 등, 선거판이 이판사판이 되어버린 현 중선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은 맹목적으로 따르며, 편견과 아집과 갈등과 분열의 이념으로 종교화된 정치가 되었고, 사람들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다.

한편, 영적 중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독선적인 교조주의이다. 교리나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자기의 주장과 사상으로 포장하여 아집과 고집으로 주장하는 분례이다. 둘째, 신비주의이다. 기독교의 영적진리와 신비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여 오묘한 사상과 교리와 이념을 만들어서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교만에 빠지게 한다. 셋째, 극단적인 은사주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은사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종파주의이다.

이러한 중독을 해독하는 길은 무엇인가? 먼저,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한다. 또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복음적 교훈을 가르치고 따라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도록 주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죄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족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20년 7월 20일 / 각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조일구 사장 강병익 편집인 이강준 인쇄인 배성현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신로 17길 11(현충동 1-29 종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경신문사)

기호 3번 총무후보 조흥영 목사를 작은교회목회자모임 목회자들이 응원합니다



못난이 사과(낙과)

아내가 사과가 먹고 싶단다.
마트에 갔다. 사과를 고르려니 가격이 너무 비싸 망설였다. 그냥 나왔다.
차에 기름을 넣으려 주유소로 이동하려는데 건너편에 트럭에 잔뜩 실은 과일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보니 낙과 사과였다. 크기도 작고, 여기저기 멍이 들고, 불품없는 사과였지만 맛을 보라고 사과 한쪽을 내밀어 주는 상인이 건넌준 그 불품없는 사과가 의외로 맛이 있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박박하게 구입했다.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비싼 마트 사과... 불품없고 상품성이 뒤쳐지는 못난이 사과... 그러나 맛은 같았다.

조흥영 목사가 그렇다.
"미련한 것들 악한 것들 천한 것들 벌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백하사 부끄럽게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전 1:27-29)

작은교회목회자모임이 있다.
못난이 3형제 같은 존재감 없는 이들... 그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낙과교회 농어촌교회 도시미래지립교회 해외선교사 군선교사들까지... 다양하다. 공통점은 작은교회, 가난한 사역자, 도움이 필요하고, 목회외에 또다른 일을 해야 사역도 생활도 가능한 목회자들...

그런 그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 보자고 씬자돈을 모아회비 월 1만 원 서를 섬긴다.
예경사는 물론 장학금, 총회발전기금, 성경신문 사문서선교, 전국장로회, 전국사모회 등 천조, 해외선교사 위모모임, 군선교사님 위모모임, 각종 세미나, 여름 가족수련회, 시역과 가족을 돌보느라 탐진한 사모님들을 위한 여행(일본 베트남 대만 제주도 등)을 통해 힘과 회복을 제공하는 작지만 큰 일하는 작은교회목회자모임 바로 그 모임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온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못난이 목사, 어리버리 한 목사, 모세처럼 말뚝더듬에 약한 목사, 바로 그 리더가 조흥영 목사다.
2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작은교회목회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목사.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찌려고 그에게, 사모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시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외치고 싶다. 그러나 어쩔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걸...

오, 주여!!
작은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오니 조흥영 목사를 공혹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진리를 사수하고, 본질은 보수적으로, 비본질은 유연함으로 교단을 섬기는 총무가 되도록 작은교회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응원하오니 주님께서도 그와 함께 기뻐하며 응원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람테오

**작은교회목회자모임 참 못난 섬김이
월송성결교회 이영구 목사 올림**